



외침과 헌신의 조화(調和), '총체적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는 복음과 섬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불가피한 고통을 겪고, 이주하는 내내 여러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다. 이주민들은 이동 중에 정신적·물리적 취약성을 지닌다. 강제 이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지역 정체성의 결여,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이주민은 '언저리'에서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로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수용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는 이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협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주민은 이동 중에 맞닥뜨리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비단 전쟁 때문이 아니라라도 가족이나 소속집단에서 분리되는 경우 그 괴로움은 더욱 극심해진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 고통스러워한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총체성을 함의한다. 총체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화된 방법이 요구되며, 이주민을 위한 NGO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와 정서 등 피차 다름을 넘어 사랑으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모두 섬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도시지역에 대다수의 이주민이 포진해있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 이주민은 잠정적으로 폭력적 상황에 부딪친다.

따라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총체성을 함의한다. 총체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화된 방법이 요구되며, 이주민을 위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를 위해 조직된 NGO는 이동 중인 사람들의 육체적·정신적·영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디아스포라를 향한 처우 개선은 우리가 항상 고심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다문화 상황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이주민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주어야 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심리상담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함께 해주어야 한다.

위 내용 중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란 부적절하다. 이주민 선교는 인간 본질의 어떤 면도 무시

해선 안 된다.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한다. 첫째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둘째로, 복음을 제시하지만 이주민이 당면한 즉각적 필요를 간과하는 일이다. 이주민은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와 정서 등 피차 다름을 넘어 사랑으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모두 섬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본지는 4월호 기획으로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총체적 이주민 선교를 다루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소식을 비롯하여 총체적 선교를 수행하는 NGO의 사역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배경아동 지원하는 '피드더칠드런 코리아'	2면
장애인 통합교육 통해 선교모델 세우는 '유니캡'	8-9면

우크라 내 한인 선교사들 "주님, 내일도 저를 써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에 강력한 저항과 반격으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현지에 남아 전후방에서 지원 활동으로 섬기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소식을 전해왔다. 재우크라이나한인선교사협의회(현 우크라이나 전쟁대책위원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내 한국 선교사들의 소식을 전했다. 키이우 근교에 있는 A선교사는 8일 "지역 성도들을 통하여 들은 바는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은 듯하다"며 "결사항전으로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로 뭉치고 있다. 정치가들도, 그렇게 싸우던 그들도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중심으로 뭉쳤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교가 있는 작은 마을도 남자는 모두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키이우의 B선교사 부부는 8일 "집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엄폐물들이 설치되었다"며 "지역민들이 개인 화기를 들고 순찰하고 있으며, 우리 아파트에서도 남은 남자들로 자경 조직을 만들어 야간에 순번을 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오늘 밤부터 끝을 보아야만 하는 전투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B선교사는 이어 "선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의 세력인 푸틴과 그 추종자들을 멸하실 것"이라며 "아파트 내 남은 가정마다 먹을 것을 현관에 조금씩 갖다 놓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C선교사는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100여 km 떨어진 오데사까지 피란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봉사로 섬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서남쪽으로 100여 km 떨어진 오데사까지 차량으로 피란민들의 이동을 돕고 있는 C선교사는 "미콜라이우에서 오데사를 가기까지 검문소가 7개 있다. 왕복 14번 검열받는다"라며 "아이들을 태우고 가니 비상등 키고 중앙선 넘어가서 검문소 앞까지 간다"고 했다. C선교사는 "큰소리 하면 총 맞을 수 있으니 겸손하고 얌전하게, 담배 한 갑 주고 매번 검문소마다 통과한다"

며 "(피란민들을) 다 내리고 돌아오는 길은 감사하고 기쁘고... 인형 같은 아이들이 아빠와 이별을 하고 여자들도 모두 우울한 얼굴들이다"고 전했다.

C선교사는 "무사히 안전한 곳까지 잘 가라고 하고 기도로 안녕을 빈다"며 "주님, 저 불쌍한 영혼들 안전한 곳까지 잘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또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심정을 전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0일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통해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국경을 향해 이어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2주 동안 피란길에 오른 어린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며, 이 중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최소 50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에 의해 아동병원이 폭격 당하는 피해도 발생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민간인 대상 공격을 막아주시고,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러시아군의 공격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약자들의 생명이 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란 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이를 위해 세계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피란민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현지에서 전해온 우크라 소식 4면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소식 10면

이주배경아동 돕는 '피드더칠드런 코리아'



▲ 코로나19 기간 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기증하는 피드더칠드런

지역의 세계화와 세계의 지역화 현상에 즈음하여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관심과 도움이 손길이 요구된다. 다문화 어린이,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의 아이들이 더욱 그러하다. 이들에게 이주민 선교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국내 이주아동에게 영양식, 교육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도움을 제공하는 NGO가 여기 있다.

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Feed The Children KOREA, 이사장 문창선)는 2015년 4월에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인도 아쌈주 암구리의 우물 개발, 네팔 지진 구호, 한국조리과학고 학생들과 인도 보육원 정기지원, 전주대학교와 필리핀 세부에 모링가 구호 영양식 공급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이다.

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이하 FTC KOREA)의 기존의 중점 사업은 북한 어린이 지원과 재난지역 어린이 구호였으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이 국제정세 및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시행이 어려웠다고 한다. 때맞추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다문화(비자발적 이주아동, 무국적 포함)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고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FTC KOREA는 경기도 교육청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아 관내의 다문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아동 대상의 모든 프

젝트 진행은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이 교육, 문화의 영역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기 위함이다. 한국의 고유문화를 넘어서 다문화 체험으로 활동을 구성하여 언어와 문화를 놀이로 익히고, 의식주 전반에 걸친 기획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육아의 짐을 덜기 위해 대형교회와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신생아 지원물품을 보내고 있다. 피드더칠드런 본부(미국 오클라호마)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위원회에 축구공과 신발 등을 보내어 GIK(Gifts-in-Kind) 사업을 연계한 지원을 보낸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교장 박동규)는 FTC KOREA와 2015년에 업무협약(MOU)을 맺어 매년 학생과 동행하여 인도 나가랜드 주의 소나기보육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문 조리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직접 구운 빵을 주 1회 안양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방과후교실에 공급하고 있다.

FTC KOREA는 이주아동의 학습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한국 청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수학, 영어,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폭넓게 지원하는 NGO와 교회가 곳곳에 풀뿌리처럼 퍼져있다.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루마니아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으로 전 세계에 희망 나눈다

글로벌호프 "매일 5천 명 이상 발생하는 피란민 위한 인적·물적 필요 절실"



▲ 루마니아 시레트 크리스티아 캠프에서 난민 지원을 하고 있는 글로벌호프 김휴성 부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AFC 정흥기 루마니아 선교사(왼쪽에서 두 번째)

난민 센터 및 캠프 4곳 운영 지원, 1,400명 이상 거쳐 루마니아 교회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빠르게 피란민 섬겨 루마니아 시레트 시장·상원 외통위원장·여당 사무총장과 미팅

사단법인 글로벌호프(조용중 대표)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루마니아 수체야바의 소도시 시레트(Siret)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위한 구호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레트는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을 피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피란민들이 평균 2일 정도 머물다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중간 기착지다. 이에 글로벌호프는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AFC(Ambassadors for Christ)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쟁이 발발한지 한 주 후부터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레트에서 신속하게 피란민들을 지원해 왔다. 루마니아에는 3월 24일(현지시간)까지 약 51만 명의 난민이 입국했으며, 이 중 16만4천여 명이 시레트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호프는 난민 센터 및 캠프 4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교회와 주민들도 자발적인 지원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우크라이나 부녀자와 아이들이 센터와 캠프에 머물며, 약

1,400명 이상이 이곳을 거쳐 갔다. 글로벌호프는 난민들을 위한 환영패키지를 제공하고, 난민 통역과 개인별 행선지 안내, 전인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상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5천 명 이상 발생하는 피란민으로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난 3월 19일 2톤가량의 구호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 물품은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주의 오프라이슈니(Oprysheny) 시장에 전달돼 지역 주민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글로벌호프 김휴성 부대표는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루마니아에 머물면서 피란민 사역을 돕고 있다. 앞서 시레트 시장은 김휴성 부대표를 만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2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상원회관에서는 상원 외통위원장과 여당 사무총장이 김 부대표와 만남을 갖고 난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1991년부터 루마니아에서 사역해 온 정흥기 선교사(AFC)는 글로벌호프 긴급 구호팀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 선교사는 "명분 없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루마니아로 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난 행렬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부분 부녀자와 아이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 국경을 통과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낮설고 두려워 잔뜩 겁에 질린 피난민들에게 루마니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처소와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피곤하고 지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루마니아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휴성 부대표는 "루마니아 교회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쉼터를 제공하는 등 빠르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글로벌호프는 난민 센터 및 캠프를 운영하는 동시에 루마니아에서 장기 체류할 우크라이나인들의 예배 처소도 마련해,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인 목사가 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호프는 루마니아 국경에서 난민센터로 이동하거나 난민센터에서 타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 마련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영어·우크라이나어·루마니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역 봉사자를 찾고 있다.

조용중 대표는 "루마니아로 들어온 난민들에게 글로벌호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어져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글로벌호프는 2011년 설립한 국제개발협력 NGO로서 필리핀 태풍 피해, 네팔 지진 피해 등 자연재해 지역의 피해자들을 돕는 등 디아스포라 현상에 창의적 접근으로 희망을 전하는 단체다.

(글로벌호프: 02-6959-5500 / info@globalhope.kr / 우리은행 26768-9076-18581 '긴급구호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 KWMC: 우리은행 1005-802-971832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 엠마오스 캠프에서 피란민 어린이들이 지내는 모습



GGVS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인성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GGVS

Mission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리더들로 양육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Vision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기운에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천 학습교육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모든 일반 학문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ACSI 교육과정을 IT와 미디어의 기능 적용

Application ONLINE 교육 통합 시스템, K-12학년 운영, ACSI의 회원으로 미국 교육과정 인정, 미국 대학으로의 입학 자격, 실시간 크리스천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교사 한명 당 10명의 학생을 배정, 현지학습센터(LLCS)운영-음악, 미술, 스포츠, 문화, 예능

GGVS 한국위원회 _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2층
GGVS 한국대표이사 이재순 목사 / GGVS 학교 부설 학습센터장 조경애 교사
http://ggvschool.com/
GGVS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http://school.ggvschool.com/
ACSI Member: https://www.acsi.org/find-a-school
인허가 번호: 010-2074-2000

현지에서 전해 온 우크라이나 소식

※ 사진은 16면 참조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 로잔 디아스포라/GDN

이반 루신(Ivan Rusyn) 목사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직 중인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 지하실을 대피소로 마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피난을 가길 원하는 교직원, 학생, 가족들은 우크라이나 서부로 보냈습니다. 저와 함께 남아있는 7명의 동료들은 매일 음식, 물, 의약품 등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역에 대한 저의 이해와 실천은 통째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사명과 사랑은 여러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전쟁을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이우는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부차(Bucha) 근교는 완전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는 최전선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피하기를 거부하고 학교 동료들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구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한 사람씩 어깨에 둘러메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막막하고 고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어린이들의 눈에 담긴 두려움을 보는 일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키이우와 다른 도시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남아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증인들입니다. 저도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소서. 저들을 위로하소서!



인터서브 네팔선교사 미남침례교단 목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국장

박래득 목사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작되고 말았다. 속속 전해져 오는 전쟁의 참상에 한국 교회와 선교계는 마음이 급해졌다. 피난민과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안타까움에 동행하기 위해 발 빠른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도 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장을 돌보기로 했다.

급히 짐을 꾸려 루마니아 국경 인근 도시인 수체아바까지 도착하는데 꼬박 31시간이 걸렸다. 이번 일정은 몹시 바빴다. 기자단의 현장 실사 취재와 더불어 구호환경 점검을 위해 실제 구호활동까지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 개시 날 아침, 바쁜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눈보라가 몰아쳤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제안을 따라 국경 피난민 구호지역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의 피난민에게 물품을 보내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먼저 구호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시장을 찾아 나섰다. 국경도시라서 그런지 대형 마트는 있었지만, 대량구매는 순조롭지 않았다.

특히 차가운 바닥에서 자는 피난민에게 필요한 매트리스와 침낭을 대량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필요한 의약품은 사전에 주문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역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능한 대로 물건을 구매하고 국경도시 시레트로 이동했다. 국경에는 이미 많은 구호단체 캠프가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보였고, 국제단체와 EU국가의 신속한 대응과 준비는 놀라웠다.

여러 날을 고생하며 국경을 넘어온 피난민의 대부분은 여자와 아이들이었다. 그들을 배웅한 남편과 아버지는 전투를 위해 다시 돌아갔다고 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슬하게 들려왔다.

캠프에는 임시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난민촌을 형성하진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나라로 신속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재난 상황과는 다른 특징이었다. EU국가 중 난민 포용을 희망하는 나라로 제공된 교통편을 이용하여 떠나기 때문이었다. 국경 밖 구호소는 비교적 물자가 잘 공급되고 있어 향후 구호방향은 국내 피난구호에 집중이 필요해 보였다.

국경에서의 구호활동은 독자적 공간 확보가 불가해 보였다. 때문에 현지 구호단체 MGM과 연합하여 음식을 나누는 활동을 했다. 계속해서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손을 비벼가며 피난민을 맞이했다. 국경을 통과한 이들의 모자와 짐보따리엔 눈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루마니아 전통음식 사르말레를 전하자 온기를 느끼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습 앞에서 추위를 내색할 수 없었다.

국경 안쪽의 피난민은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하니 구매한 물건을 속히 보내야 하는데, 차량과 운전기사 수배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체르니우치(우크라이나 서부 도시)로 차량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또한 현지 동역자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구호대책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짧은 여정의 단편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본다. 고아와 과부는 전쟁 중에 많이 발생한다. 전쟁을 통해 죄악이 더욱 확장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더 이상의 고아와 과부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 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및 이주민 선교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임원취임 감사예배 드려



▲ 임원취임 감사예배 현장에 참여한 KIMA 새 임원진 일부 단체사진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가 최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활성화와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안양 평촌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KIMA 임원취임 감사예배'에서는 신임 상임대표로 문창선 목사(위디국제선교회 대표)를 비롯하여 신임 공동대표 등 10여 명의 신임임원이 취임했다.

문창선 목사는 1부 예배 말씀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앞으로 귀국 선교사들이 계속 많아질 상황"이라며 "필드 선교사가 돌아와 이주민 선교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풍성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KIMA 2기 임원이 구성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한편으로는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며 "새로운 임원진들이 사명을 가지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주민 사역의 확장을 이루려 할 때 어떤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를 보일 수 있는 사역이길 원한다"고 당부했다.

KIMA의 다른 신임임원진의 인사와 소개도 이어졌다. 공동대표 서기원 목사(부

천몽골교회 담임, 이주민선교연합회 공동대표, KWMA 디아스포라선교 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는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가 발전하여 여기까지 왔다.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좀 더 협력해야 할 때"라며 "KIMA가 좋은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족하지만 공동대표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허은열 목사(씨앗선교회 대표 선교사, 제자선교회 이사, 개혁주의생명신학선교회 회장, 인천외국인선교협의회 사무총장)는 "세계선교의 시대적 소명인 이주민 선교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 감사드리고, 특별히 한국 세계선교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KIMA를 창립케 하시고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신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 KIMA가 세계선교를 선도할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류성한 목사(우리교회 담임, 전 국경없는마음 사무국장, 전 연장통합이주민선교협의회 총무)는 "제 아내가 베트남 사람으로, 이주민-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교회의 내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국교회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박성규 목사(예승네팔선교센터 대표, 전 네팔 선교사)는 "네팔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이주민 선교는 배우는 중에 있다"며 "KIMA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토로 나가면, 주님이 KIMA를 통해 한국 이주민 선교의 맥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이정혁 목사(다문화 마을 대표,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대표, 다문화 국제교육원 대표)는 "KIMA 2기 임원 출범이 굉장히 의미 있다"며 "KIMA가 끈고하게 서서 이주민 선교 연합의 좋은 버팀목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문위원 신상록 목사(KIMA 직전 상임대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허명호 목사(KIMA 직전 공동대표, GMS LMTC 원장), 사무총장 이형노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다문화위원장, 빛오름선교회 담임), 부사무총장 문성주 목사(글로벌비전센터 대표,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 대표, GMS 이주민선교연합

회 총무), 서기 남양규 목사(서울네이션스교회 담임, GFM선교회 대표), 부서기 이재승 목사(순복음열방선교회 담임, 세계교회개척선교회 대표, 드림평생교육원 원장), 회계 안정호 목사(송우벧사랑베트남교회 담임, 열방선교네트워크 대표), 부회계 하소미 권사(만나교회, MMTS 훈련본부장) 등의 소개가 있었다.

한편, 취임식에서는 강대홍 선교사(KWMA 사무총장),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담임), 티비 토마스 박사(TV Thomas, 로잔디아스포라), 존 백스터 박사(John Baxter, 미국선교연합회 이주민 분과), 폴 시드너 박사(Paul Sydnor, 유럽 난민 Refugee Highway), 조엘 라이트 박사(Dr. Joel Wright, 남미 디아스포라)가 영상으로 축하하며 KIMA의 변화와 발전을 응원했다.

KIMA는 이날 직전 상임대표 신상록 목사와 직전 공동대표 허명호 목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상록 목사는 격려의 말씀에서 "KIMA의 정체성은 국내에서 이주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달체계이면서도 하나의 큰 집과 같다"며 "KIMA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자랄, 자립, 자전하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중요하다"고 권면했다. 또한 "인화(人和)가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이주민 선교뿐 아니라 세계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 성경적 답을 주고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KIMA는 2022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범인화 추진 △뉴 노멀시대에 맞는 선교전략 수립 △리스팅 콜(Listening Call) 활성화 △10월 중 한국이주민선교포럼 개최 △KIMA 홈페이지 활성화 △200개 단체회원 확보 목표 실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이재호

Mission Statement

-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탈북민 입장에서 바라본 탈북민 지원 정책은..."

관악통일비전포럼서 박성록 전도사 발제, 조요셉 목사·신민범 목사가 토론 맡아



▲ 탈북민 박성록 전도사가 발제하고 있다.

탈북 과정서 상처 많은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 필요 영역별 탈북민 전문가 양성해 탈북민 정착 등 역할 감당하길

목숨을 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위기와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 외로움과 고독,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재입북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가 2021년 밝힌 연도별 탈북민 수감자 수는 2017년 144명,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년 8월 말 17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탈북민 사망 요인 가운데 자살 비율은 2016년 7.9%(사망자 88명 중 7명)였고, 2017년 8.7%(92명 중 8명), 2018년 14.9%(87명 중 13명), 2019년 10.1%(79명 중 8명)였다. 이는 한국인 사망 요인 가운데 자살 비율인 4.3%(2020년 기준)보다 2~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사회 적응과 정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탈북민 박성록 전도사(총신대, 열방침교회)는 최근 서울 동작물대동산교회(조요셉 목사)에서 열린 관악통일비전포럼(상임대표 남승호 서울대교수) 2월 월례 포럼에서 '탈북민 입장에서 바라본 탈북민 지원 정책'을 발제해 관심을 끌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박성록 전도사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도움으로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할 때 집과 정착 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과 의료혜택,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대한민국에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탈북민 정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탈북민들도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탈북민 지원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하는 탈북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탈

북민들도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탈북민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한 4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박 전도사는 먼저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한 사람들이 웃으며 다가가서 탈북민들에게 인사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며 "탈북민들은 북한과 중국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받은 일들이 많아 사람을 잘 대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탈북민 처지에서 한국 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상처가 될 때도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이 어디냐, 언제 탈북했느냐, 가족은 어머냐, 결혼했느냐, 취업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탈북민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가족, 친척과 생이별하며 국경을 넘는 탈북 과정과 가족이 굶어 죽고, 몸이 아프고 취업도 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에게 이런 질문은 큰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박 전도사는 두 번째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정착 초기에 교육을 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탈북민들은 하나원 교육을 3개월 받고 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6개월을 보낸 이후에는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보통 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영국은 4년 동안 사회적 적응 기간을 준다. 독일의 경우 언어 훈련은 8개월 이상, 직업 교육은 2년에서 3년 동안 시키고, 사람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을 잘할 때까지 훈련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한국 사회를 경험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건강한 몸, 경제적인 능력과 인맥이 있어야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며 "탈북민들은

이런 것이 부족하여 이를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도사는 세 번째로 "탈북민 집단 거주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산업공단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지를 만들어 주면 탈북민들이 일해서 먹고사는 데 많이 유리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은 부모, 형제, 친척이 없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주지를 만들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정착을 잘할 수 있다. 한국인들도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타운에서 서로 돕고 살면서 그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박 전도사는 네 번째로 "각 분야 탈북민 전문가들을 키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탈북민 전문가들이 탈북민의 한국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 재봉, 요리, 기독교 등 각 분야에서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을 키워내고,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면 한국에 정착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어를 배울 때에도 탈북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도사는 "통일이 돼도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 사람들을 가르치면 영어를 사용하고 역량이 달라 북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탈북민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양쪽 행태를 잘 아는 탈북민 전문가들이 서로를 잘 이해시키고 화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각 분야의 탈북민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통일의 마중물' 탈북민 적극 돌봐야

이날 토론을 맡은 관악통일비전포럼 상임고문 조요셉 목사는 "첫 번째로 언급된, 남한 사람이 탈북민을 대할 때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중요하다"며 "남한 사람들 안에 탈북민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여, 탈북민들이 냉대받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네 번째, 탈북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라며 "실제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분도 있는 등 각 분야에서 탈북민을 남북통일의 일꾼으로 키워주는 것은 바람직하며, 역량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요셉 목사는 두 번째 '탈북민의 초기 정착 교육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과 세 번째 '탈북민 집단 거주지 마련'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탈북민이 하나원에 도착하자마자 외부와 계속 연락하면서 초기 정착 교육이 집중이 안 돼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나

간 뒤에는 거주지의 하나센터가 탈북민을 지원하는데, 하나센터를 활성화시켜 실제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탈북민 집단 거주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거주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고, 탈북민 거주지를 만들 경우 도리어 남한에서의 정착 기간이 늘어나고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교회가 복음으로 탈북민들을 차별 없이 품어주며 수용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악통일비전포럼 통일목회분과위원장 신민범 목사(경나교회)는 "탈북민들이 남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남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다"며 "가칭 '탈북민과 대화법'이라는 책을 발간해 통일선교 관계자, 특히 탈북민을 돌보려고 하는 남한 봉사자들을 교육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을 위한 교육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겠지만,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 교육 기관을 세워 지혜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도 탈북민 집단 거주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적인 필요는 있다고 보이지만, 자칫 다른 집단과 분리되는 계도화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는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무엇보다 그 거주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면 탈북민 사회에 대한 경계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직업이나 사회 각 분야의 탈북민 출신 전문가를 양성해 지도자로 활용하자는 안은 매우 필요하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미 남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이들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민들을 돕고 멘토링 한다면 탈북민들이 상당히 빠르게 정착하고 자립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 단체들이 각 분야 인재들을 찾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며, 한국의 수많은 통일선교단체들이 이 일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탈북민을 잃어버리거나 잘 관리하지 못하면 통일은 요원할 수도 있다"며 탈북민 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8곳
다문화여성 취업 지원 등
지역별 다양한 이주민 지원 정책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던 본 대회는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에서 성공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부산 사상구, 대구시,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상북도, 제주 서귀포시 등 8곳이다.

서울시는 '민관협력' 방식의 능동적 방역 참여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방역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부산 사상구는 "따뜻한 정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문화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24시간 '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을 운영하여 외국인 긴급출동 요청시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남 아산시는 "톡톡카"를 운영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한다.

경북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인제 양성 사업을 시행하여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주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 모델을 구축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해당 지자체의 이주민은 우측 표의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생활, 복지, 취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혁준 기자 l0ke0114@gmail.com

연번	지자체	사례 제목 및 내용
1	서울특별시	민-관-학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유학생 방역지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내 입국 외국인유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공항 유학생 안내부스' 및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운영, 유학생 방역 정보 웹사이트 구축 등 지원
		부산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필수 모바일 앱 Life in Busan 외국인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모바일앱을 개발,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 중대본발 재난문자 푸시 알람, 위험기상정보 및 전화채팅상담 등 제공
2	부산광역시	민관산학 협업 다문화여성 취업지원 "따뜻한 정리" 프로젝트 다문화여성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민관산학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주부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정리수납 전문가로 양성
		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 운영 외국인 긴급출동 요청시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등 내외국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24시간 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 구성·운영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숨겨진 재능을 함께 나누는 광산구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 운영 경력·경험·취미·재능을 보유한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재능기부단을 구성(15개국 74명), 방역, 방법,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내·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해결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Talk Talk Car)" 운영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미취학자녀를 대상으로 주2회 언어재활사가 찾아가 이동치료차량 톡톡카 등에서 놀이 및 그림자료를 활용하여 언어치료 실시
4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지역사회의 경쟁력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무역,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양성하여 맞춤형 취창업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심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센터가 협약을 체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서비스 개발 및 결혼이주여성 재배채소 온라인 판매 추진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의 경쟁력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무역,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양성하여 맞춤형 취창업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심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센터가 협약을 체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서비스 개발 및 결혼이주여성 재배채소 온라인 판매 추진
6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사회의 경쟁력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무역,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양성하여 맞춤형 취창업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심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센터가 협약을 체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서비스 개발 및 결혼이주여성 재배채소 온라인 판매 추진
7	경상북도	지역사회의 경쟁력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무역,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양성하여 맞춤형 취창업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심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센터가 협약을 체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서비스 개발 및 결혼이주여성 재배채소 온라인 판매 추진
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사회의 경쟁력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연중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무역,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양성하여 맞춤형 취창업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생공심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관련센터가 협약을 체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체험서비스 개발 및 결혼이주여성 재배채소 온라인 판매 추진

* 외국인주민이란 지역 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여행하는 순례자: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신문은 매월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영국 옥스포드선교학센터의 학과장 토마스 하비(Thomas Harvey, Ph.D 듀크 대학교)가 저술한 8장 '여행하는 순례자: 이주민 선교'를 요약하였다. 저자 토마스 하비는 로잔 글로벌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자문위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외국인, 이주민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받은' 이들

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낯선 이들에게 그분의 보호로부터 오는 축복과 평안을 선포하신다. <디아스포라 선교학> 8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초대교회의 부리를 설명하고, 오늘날 선교교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드러낸다.

성경이 가르치는 효과적인 선교는 첫째로, 자발적 이주든 비자발적 이주든 이동 중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향한(to) 선교이다. 둘째로, 이동 중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한(through) 선교이다. 이는 우

리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의를 세우기 위해 인종, 문화, 국경을 넘어선(beyond) 선교이다.

디아스포라를 향해(to), 디아스포라를 통해(through), 그리고 인종과 문화와 국경을 넘는(beyond) 선교를 강조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전체에 선교의 대상뿐만 아니라 수단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창조 때부터 '이동 중에' 있도록 부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 안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창조와 구속, 이 두 언약은 선교를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그들을 통해, 그들을 넘어서서 이루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인 토마스 하비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재차 설명하며 성경적 선교의 역동적인 특성을 끌어낸다. 그는 창조, 타락, 구속을 고정된 신학적 주제로 접근하는 대신 디아스포라를 향한 사건으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신학적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용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영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안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윤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기관

땅끝에서 꿈꾸는 '장애인 통합교육' 사역

사도바울의 숙원이었던 스페인(서바나) 땅에서 교육사역 펼치는 김용재·모니카 선교사 부부



김용재(Danny Kim) 선교사

저는 1984년에 도미니카공화국의 대기업 해외지사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이국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다시 만나 소명을 받고, 선교를 위해 신학, 의학 그리고 한의학 공부를 마친 뒤 의료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첫 소명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Action Against Aids' 단체를 세워 대표로 활동하였고, 이후 아이티 대지진 때 최전선에서 의료사역으로 헌신하며 선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이티선교사로서 'Viva Haiti Movement' 대표로 일하며 열매를 거두다가 선교지를 현지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지금은 새로운 소명을 받아 스페인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부유한 나라이고, 최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 문화, 경제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유럽에서도 상당히 앞선 나라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이나 아이티와는 상황이 다르기에, 이것이 소명을 받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스페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이티 땅을 처음 밟았을 때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항상 선교의 ABC를 몸소 세우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에서의 사역은 의료를 통해 치유하는 사역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로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스페인 선교의 시작이라는 난제 앞에 다시 한번 얻은 결론은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비장애인의 경계없는 통합교육 수행하는 '유니캡' 사역은 선교의 ABC를 몸소 세우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그런데 의료시스템과 보장이 매우 앞서있는 스페인에서 의료를 통한 치유 사역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성인 기독교인 중 약 85%가 4~14세 시기의 기독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14 창문(window)'은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입니다. 스페인에서 선교 사역의 첫발을 디디면서 교육보다 적합한 사역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이티 대지진 당시, 저희 부부에게 늦둥이로 태어난 쌍둥이 중 한 아이

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된 사람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저는 어떠한 '틈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 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 받으며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함께 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정부에서 펼치는 장애인 정책도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ONCE라는 단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사회 참여를 돕는 NGO로, 스페인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스페인의 여러 NGO 중 상당수가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교육하고 돕

는 단체가 대부분 세워져 있으며, 지적장애와 지체부자유 아동을 위한 단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Colegios de Integración)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운증후군인 막내 이삭이를 지난 10년간 키우며 아이를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고 느낀 것은, 통합교육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학교 당국도 교사들도 구체적인 경험과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애아녀를 둔 부모들의 한결같은 안타까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 그 부모, 형제자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integrated education을 넘어 inclusive education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요즘 선진국의 장애아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 부모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량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경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아픔을 겪지 않고도 자신이 지닌 재능 계발에 성공하여 사회 참여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 설립 작업은 아내 모니카 선교사를 중심으로 2016년 5월부터 시작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 교육 사업은 '유니캡(Uniendo Capacidades: Uniting talents, UNICAP)'이라는 이름 아래 전문 교육가 17명이 힘을 합해 준비하고 있으며, 재단을 통한 학교 설립을 위하여 서류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첫 모델이 견고하고 성공적으로 세워지면 스페인 내의 타 도시로 교육사업을 전파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모두에게 문이 열린 학교가 되기 위해 스페인 국적을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남미, 북아프리카, 회교권에서 이주해 온 아이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를 넘어 인종과 문화까지도 통합하는 교육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페인 복음화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가난한 나라나 정치·종교적 접근이 제한된 나라가 선교의 우선 대상국이라는 정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유럽의 기독교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복음의 근원지인 유럽, 그중에서도 스페인이 가지는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스페인이 최근 들어 이슬람국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페인은 이슬람 무어족으로부터 8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슬림은 자신들의 문화와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인을 수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스페인 그라나다와 코르도바 지역에는 스페인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장애아동이 통합교육 통해 사회참여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 스페인인 무슬림을 접촉하고 복음으로 인도할 기회의 땅

큰 모스크를 마드리드에 짓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였고, 현재 그 모스크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유럽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상의 교두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선교적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슬림이 스페인을 이슬람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스페인이 무슬림을 접촉하고 복음으로 인도할 기회의 땅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스페인 남단의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의 아프리카 땅 모로코를 바라보고 있는 세우타와 멜리야라는 도시에는 인구의 40%가 무슬림입니다. 여기에 6개의 작은 복음주의교회가 있고, 이 중 몇몇 교회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슬람 세계인 북서부 아프리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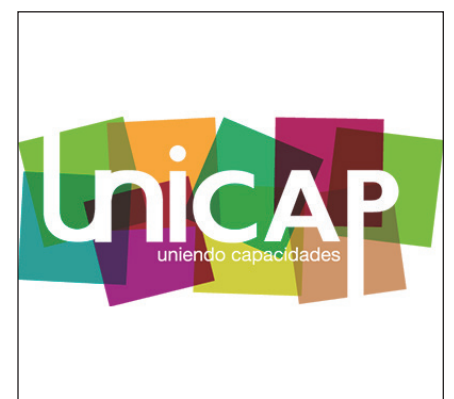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 선교는 이슬람이 크게 확장하고 있는 유럽의 영적 재건에 귀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은 학교 설립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통합학교를 세울 수 있는 대지와 건축을 시나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설립을 준비 중에 있지만 스페인의 개신교인 숫자가 1% 미만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역을 위해 모인 전문 교사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이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고, 이에 교사들은 성경의 내용을 담은 동화와 동요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육기관 내에 채플을 두는 것 등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우선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학교의 미래를 고려하면, 이곳 스페인 교육행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립학교로서의 면모를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우리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영광(마 5:16)

본지 고문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CDM) 설립이사장
/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황덕영 목사

전쟁을 피하여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국가 사람들은 친절하게 이들을 맞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루마니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도착하면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식단도 우크라이나식 요리(보르쉬, 갈롭찌 등)로 준비해두어 난민들이 음식을 먹으며 잠시라도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난민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무료로 지급되며 손톱깎이, 립밤, 세정제, 물티슈, 밴드, 갈아입을 속옷과 티셔츠 등 섬세한 배려가 담긴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지에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하는 난민에게 이웃들의 환대는 곧 생명이며 회복을 위한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의 품에 찾아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도 동일한 영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회의 교육, 환경, 시스템과 통합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언어 및 봉사 자원의 부족,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78가정이 울산에 29가정, 인천 21, 김포 8, 남양주 6, 화성 5, 용인 3, 고양 3, 음성 2, 시흥에 1가정으로 재배치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분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보다는 민간단체 또는 종교기관 등에서 케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류사회 주민들은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및 향후 도래할 비슷한 상황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참으로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범과 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은 안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난민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기 마련입니다. 감정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지속적으로 아픔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은 후 나타나는 장애 증상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돌봄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식의 열심으로 중복적인 접근이나 불필요한 경쟁은 삼가야 합니다. 과도한 관심과 지나친 섬김은 그분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의 인식입니다. 통합은 상호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칫 고립이나 유기의 상태로 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무슬림이라는 특별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종교성을 고려하여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협력을 통한 사랑의 섬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동유럽 주변 국가들이 정성으로 섬기는 즈음에,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특별기여자의 상황이 좋아지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부르심, '이주민들의 좋은 이웃'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 협동총무
/ 예장통합 총회 세계선교부
인도 선교사



정유구 선교사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영상 50도에 다다른 날씨와 낮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우리 가족이 정착하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맞은편 집에 살던 인도인 부부였다.

부부는 우리 자녀들이 영어와 힌디어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때 과외 선생이 되어 주었고, 인도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주변에 다닐 만한 학교를 찾아주었다. 작동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고쳐 주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정수기를 설치할 때도 우리 곁에서 통역을 해주었다. 부부는 채식주의자인 힌두교도였지만, 우리가 고기와 생선요리를 할 때 냄새가 나도 한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비자 연장을 받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첨부할 서류 중에 현지인의 신분증이 있었는데, 부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분증 사본을 전해주기도 했다. 부부는 독실한 힌두교도들이었다. 인도의 특성상 선교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사역을 해왔지만 이 가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선교사임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우리를 돕는 일에 전혀 거리를 두지 않았다.

인도인 부부의 이야기로 서두를 꺼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78가정 390명의 한국 정착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으로 인해 긴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경우이다.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음식도 할랄푸드 위주로만 섭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 식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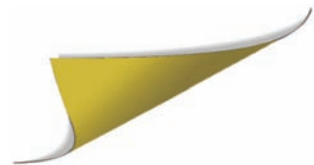
가 풍성하다지만 이들에게는 여의치 않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한국에 온 이들에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이들을 돕고 있다. 교계 역시도 특별기여자들을 위해 선교적 목적을 뒤로하고, 인도적 목적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특별기여자들은 진천 인재개발원에 2개월간 머물다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하여 4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다. 3월에 들어서는 전원 취업하여 9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스스로 정착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특별기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와 일상을 공유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정부의 용어에 따르면 '사회통합요원', 즉 주위에서 한국 정착을 돕는 멘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도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보다 이해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인도인 부부가 종교도 국적도 다른 한 가정을 이웃으로 기꺼이 받아주었듯, 우리도 특별기여자를 대하며 좋은 이웃으로서 그들 곁에 있어주어야 한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260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의 참된 이웃으로 잘 준비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 더욱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Empowerment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역사상 최초의 이주 선교사: 아브라함의 소명

성경 속 이주민

하나님은 특정한 사역을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역이 수행되는 방식은 단기적 체류, 장기적 체류, 또는 이동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썸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은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고향으로부터 뿌리 뽑히듯 이주하며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된 임무에 수반되는 여러 요소를 따져볼 때 힘 있는 젊은이가 가장 적합할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75세의 노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의 조상인 노아가 구원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신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끄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길 잃은 이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될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세 아들 중 한 명이었고, 데라는 썸의 직계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둔 형제 나훔, 하란과는 달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창 11:30).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썸의 족보와 연관 짓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생명들을 이주시키시고, 시날 평원에 정착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성경 역사상 최초로 사람들의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게 하셨다. 직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주'로 이야기가 이어진

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 11:8~9)

사람들이 세계 각지를 향해 난생처음 대규모로 흠어진 이 사건은 성경 역사에서 개인과 가족 및 공동체의 이동성을 암시하는 전조현상이었다. 이후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르(현재의 이라크) 땅에서 하란(현재의 터키)에 임시 체류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Dr. Tereso Casino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미는 '위기의 전화'

사역 리포트



재중동포인 손명성씨(1959년생, 가명)는 2011년부터 목동인지교회(담임목사 조명숙)에 출석했다. 손 씨는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런데 목동인지교

회에 다닌 지 1년이 될 무렵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아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고, 투석혈관의 협착증으로 인해 4~5개월마다 혈관 확장시술도 받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손 씨는 2015년 8월부터

미등록 이주민이 되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4년간 적십자 내의 희망진료센터의 도움을 받아 투석을 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21년 말까지는 매달 150만 원의 투석비를 목동인지교회가 부담했다. 교회는 10년 7개월간 손 씨의 주거비, 식대, 생활비를 매달 지원하고 모든 치료비를 책임지면서 1억2천만 원을 감당했다. 게다가 손 씨는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했지만 투석 환자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손 씨는 이에 사단법인 사랑의나눔(이사장 서경석 목사)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서경석 목사는 지난 20년간 서울조선축교회를 담임하면서 재중동포를 섬겼다. 현재는 은퇴했지만 서 목사는 절박한 고통 속에 있는 재중동포를 항상 도와왔다. 서 목사는 손 씨를 돕기 위해 (사)사랑의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15개 교단과 의

논하였고, 목동인지교회가 부담하던 일을 다같이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했다. 그 방법으로 손 씨를 '위기의 전화' 대상자로 접수한 것이다.

사랑의나눔이 출범한 '위기의 전화'는 재정·법·가정·건강 등의 문제로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위기의전화(1588-3891)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랑의나눔이 돕는 운동이다.

절박하고 곤경에 처한 이주민에게 위기의전화는 손을 내밀고 있다. 1588-3891 번호로 도움을 청하면 중앙본부가 인지하고 해당지역의 사랑의나눔이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접수가 되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 위기구출운동본부를 구성하며, 큰 교회와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에도 도움을 청한다.

정리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To-Plate

천혜지역 호주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땅끝이웃

문창선 목사

: 이주민 사역 에피소드

본지 발행 편집인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헨리의 방문

주일마다 여덟 차례에 걸쳐 나라별 예배를 드리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그야말로 휴식의 시간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선교 사역은 마치 5분 대기조 같아서 늘 긴장해야 한다. 여러 공장에서의 통역 요청, 병원 심방, 대사관 방문, 일자리 소개, 구직소 방문 등의 사역은 요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어느 월요일은 몹시도 많은 비가 내렸다. 모처럼 두 다리 쪽 뻗고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나이지리아 출신의 헨리 형제였다. 그는 이 태원을 다녀오면서 전철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마침 택시가 교회 앞으로 지나길래 내려서 들렀다고 했다. 지쳐있던 나는 헨리에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한 후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헨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가보니 성전이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교회 건물 옥상의 배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빗물이 비상구 계단을 타고 흘러온 것이었다. 빗물은 발목까지 흥건하게 괴어 있었다. 만일 헨리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사무실에서 곤히 잠들었을 테고, 그렇게 오후 내내 빗물이 차서 하마터면 성전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헨리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난처인 성전을 지켜주신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교 사역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 표적을 통해 보여 주셨다.



자마이카의 죽음

위디신학교를 다니는 자마이카 형제가 있었다. 평소에 수줍음이 많고 마음이 착한 그는 늘 꾀은 일을 도맡아 하던 형제였다. 그는 본국에 먹여 살릴 가족이 다섯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가족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후 사역을 하길 원했던 그는, 신학을 배우고 열심히 일하여서 빚을 다 갚으면 주님의 종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자마이카가 3학년 과정을 밟을 무렵,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살아도 식물인간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병원에 모여들어 가슴 아파했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후 두 달이 흘렀지만,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사관 직원들과 상의하여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다.

매일 방문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자마이카는 그렇게 이국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많은 동료들을 애통하게 하였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은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이백만 원가량의 병원비도 선교회와 대사관, 그리고 동료들의 모금을 통해 어려움 없이 지불할 수 있었다. 도리어 남은 돈 삼백여만 원은 자마이카 형제의 고향 가족에게 위로 차 보내줄 수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깎아 따로 보관하고 그를 화장하여 가족의 품에 보낼 때, 외국인근로자 출신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의 소망이 못다 핀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지금도 그의 가족에게 연락이 오고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자마이카의 가족에게 있을 것을 확신한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이민(1910-1945)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일본은 강제로 국권을 빼앗은 후 한국에 많은 식민지 회사를 설립했다. 그렇게 세워진 회사는 농지를 약탈하고 착취하였으며, 토지를 잃은 대다수의 농민은 일본의 탄압을 피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주, 러시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민자들은 점점 늘어났다. 1910년 일제의 국권침탈 당시 조선인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이었고, 이 중 1.7%에 달하는 약 30만 명이 디아스포라였다. 이들 중 약 22만 명이 중국으로, 6만 명이 러시아로, 이외에도 하와이, 미국 본토, 일본, 멕시코로 향했다.

1932년 일본이 만주국 건설을 위해 개발을 시작하면서 한인들의 대거 만주 이주가 시작되었다. 1930년대 후반 만주에는 5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있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만주에 정착한 경우였다. 또한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었다. 이 시기에 일본으로의 이민도 본격화되었다. 일본이 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호황을 누리면서 다수의 한인은 노동자 신분으로 일본에 갔다.

일본은 1937년 청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조선인을 강제로 징집하여 일본으로 끌어들였고 조선인 디아스포라를 증가시켰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에는 23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있었지만 대부분 귀국하여 1947년에는 약 60만 명만 남았다. 일제강점기 피난민들은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 특히 러시아 연방의 고려인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벼농사를 짓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또한 군대를 훈련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기지를 건설했으며 신한촌(新韓村)을 세웠다. 최재형, 이상설 등의 지도자들은 권업회(勸業會)를 창설하고 조선학교와 조선극장을 건립하여 해방을 이룩하였다. 이 운동은 자치 지방을 건설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더 큰 러시아를 만들자고 선언한 러시아 정부에 의해 모든 계획이 중단되고 말았다.

1937년 스탈린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 약 3만6000 가구, 총 17만1700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정착한 이후에도 고통을 겪었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권업회(勸業會)는 러시아 연해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항일독립운동 단체이다. 사진 속 인물은 초대 회장 최재형, 부회장 홍범도, 의장 이상설, 부의장 이종호 등.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교회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영화 <노예 12년>

전문인 칼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前주몽골대한민국영사
이흐자식국제대 명예법학박사

글

길강욱 소장

2014년도 제86회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다. 거짓말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 감독의 <노예 12년>이다. 영화의 배경은 1840년대 미국으로,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조직화된 노예상들은 미국의 자유주(州)에 사는 흑인들을 납치하여 노예주(州)로 팔아

넘긴다. 부인과 두 자녀를 둔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몬 노섭도 자유로운 삶을 누리던 중 납치되었고, 노예주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루이지애나로 팔려 간다. 한순간에 자유를 빼앗긴 그는 '플랫'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며 노예신분으로 12년간 온갖 고초를 겪는다. 영화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노예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훼손당한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준다.

영화 시작부터 관람 내내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가 하루 빨리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탈출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동시에 마음 한켠에선 답답함으로 가슴이 저며 왔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한 개인이 가진 어

려움은 해결되어도 그 너머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비윤리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 천부적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무의식의 사회. 이는 불과 70여 년 전 미국의 상황이었다.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로 불리는 미국은 여러 종류의 금속이 용광로에서 녹아 새로운 합금을 만들어 내듯이, 다양한 문화를 녹여 하나의 미국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이주민(흑인) 등이 차별받기도 했지만, 남북전쟁과 민권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차별받던 이들과 융합하는 이민 사회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사회제도와 인식에 대해 저항하

면서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성별, 장애와 비장애, 보통 사람과 수재(영재) 등을 끌어안은 다양한 정책을 확장해나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민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에서 잠시 멈췄지만, 팬데믹 이후 다시 이민다문화로 진전해 나갈 것이다. 한 개인이 받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사회적으로 개선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민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사회적 인식과 습성,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4년 전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와서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예멘 어린이 나테르의 말로 글을 맺고자 한다. "아무리 문화가 똑같지 않아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 서로서로 존중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경쾌한 연주

이달의 문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개봉 1974.07.17

장르 뮤지컬, 드라마, 가족

감독 노만 주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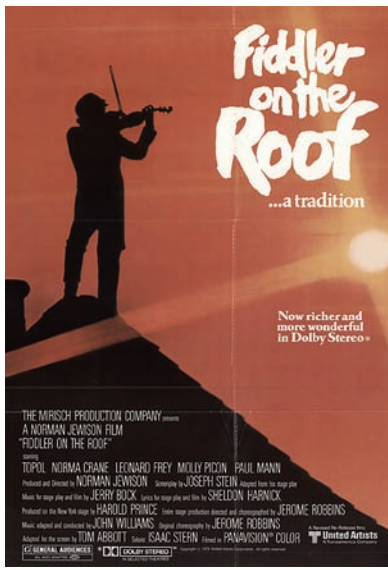
러닝타임 179분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시대 배경은 1900년대 초기의 우크라이나이다. 영화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가 유대인을 박해하던 시기를 담고 있다. 영화의 중심인물 테비에는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아나테프카'에서 살고 있다. 아나테프카는 유대인들이 유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곳이다. 유대인인 테비에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우유 가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깨끗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다섯 명의 딸이 있다. 테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낙천성을 잃지 않는다.

유대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테비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살아간다. 그는 조국을 잃은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의 전통으로부터 정체성을 확인받는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서 전통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가 전통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죽음이나 다름없다. 테비에는 죽음과도 같은 자기 포기를 첫째 딸의 결혼 이후에도 지속해서 경험한다. 둘째 딸은 키이우에서 온 공산주의자 청년과 사랑에 빠져 러시아 수용소까지 따라가고, 셋째 딸은 유대인이 아닌 러시아 사람과 결혼한다. 테비에는 강하게 반대해보지만 결국은 딸들의 앞날을 축복한다. 잊힌 데 뒤틀린 격으로 러

시아가 유대인에게 추방명령을 내리면서 테비에는 보금자리까지 떠나게 된다. 추운 겨울날, 짐을 싸서 정든 땅을 떠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내내 테비에 고난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영화의 분위기는 어둡지 않고, 되려 활기가 있다.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바이올린 연주자 때문이다.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심을 굳게 믿는 테비에는 하나님께 질문, 탄원, 호소, 원망 등을 뱉는다. 그런 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것처럼만 보인다. 다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남자가 갑작스레 등장하여, 테비에가 깊은 고민이나 낙심에 빠져있을 때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경쾌한 연주를 들려줄



뿐이다. 그럴 때마다 테비에의 기분은 한결 나아진다. 테비에의 특유의 낙관은 삶 자체에 대한 그의 애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도 하다. 영화 말미에 추방명령을 받고 마을을 떠나는 테비에에게 어김없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테비에의 뒤를 따르며 경쾌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테비에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생긋 웃는다. 모든 게 무너져가는 테비에에게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일 것이다. 테비에에는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품고 있었다.

테비에에는 소중히 여기던 전통을 버리게 되더라도,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테비에의 사랑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은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테비에에게 바이올린 연주자로 나타났다. 누구나 마음속에 들리는 연주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없다면 그 연주를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고, 이미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에게 당신이 연주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권대식 기자 intruthinlife@gmail.com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 신문은 이주민 선교에 관한 파트너십, 전략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경험, 연구 및 자원을 공유하는 국내외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신문은 이주민 선교에 관련된 사람들과 토론하고, 계획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가능한 한 많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 때문에 디아스포라 신문은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후원이 이주민 선교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신문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264401-04-343076(위디선교회)입니다. 정기적인 후원을 위하여 CMS도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신문 스태프 일동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오류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02:00

중국어예배

일본어예배

인도네시아어예배

러시아어예배

벵갈어예배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수도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0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0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0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0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kwangsung.org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예배 토요일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정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사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0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09: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468-9191

H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0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이주민 예배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0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

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

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

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구미제일교회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바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예배 시간만 안내해드립니다. (교회명 가나다순)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14: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3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일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충청권역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53-756-1701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디아스포라신문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newspaper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위대국제선교회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HAPPY TOGETHER

2022 인천 부활절 연합예배

코로나 팬데믹 시대 고난받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눕니다.

현금과 후원금은 1박스 5만원 정도의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 인천외국인선교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합니다.

참여방법

- 교회나 단체별로 5만원 이상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 후원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해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 생필품 박스에 넣을 물품을 후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시 _ 4.17 (부활절 주일) 오후 3:30
예배장소 _ 남동구 다문화지원센터 (호구포역 1번 출구)

후원계좌
국민은행 660401-01-694207 (김민지, 풍성한교회)

문의 & 연락처

- 준비위원장 이진오 목사 010.8955.2520
- 총무 김대희 목사 010.8537.3928

주최
고난함께인천연합예배
인천외국인선교협의회

HAPPY EASTER



▲ 끝없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난민 행렬(사진제공: 김태한 특파원).



▲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구호 음식(사진제공: 김태한 특파원).

▼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전해온 감사편지. ©글로벌호프 (3면 참조)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실시단을 파견하였다. (4면 참조)



▼ 수체아바에서 피란민을 대상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김태한 특파원.



Grace Global Vision School

California CDE Registered
Member of ACISI

US Education System
K-12 Online Education Platform
Earn US Diploma

Grace Global Vision School
K-12 On-Line Education Platform

RSL System: Real Time Synchronized Lecture

LLCS: Local Learning Center Schooling

Participate in classe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and time differences

Involve your children in Learning

Education is projecting the future of Your Children and Prepare them as Future Leaders

what WE LEARN Today becomes who WE ARE Tomorrow

Excellent Knowledge (IQ), True Faith (SQ), & Good Character (EQ) by adopting ACS's Christian curriculum and textbooks

THINK GGVS

START a small Steps LEARN BIG

Grace Global Vision School
K-12 On-Line Education Platform